호당공 權採 ‘ 호당지시비 ’ 건립 추진

서울 옥수동 독서당 터에 ‘ 안동권씨 四始 ’의 하나로

▲ 독서당 터 표지석이 있는 소공원을 찾아 안내하고 있는 호당공 후손 권혁찬씨

▲ 길건너에서 본 독서당터 소공원

▲ 후면에서 본 독서당터 소공원. 권혁찬씨는 왼쪽 사각으로 길건너편이 유지소공원으로 적지라고 하고 있다.

조선조에 들어 안동권씨가 타성씨에 선도하여 네 가지를 비롯하였다 하여 이를 ‘ 사시四始 ’라 일컬어 긍지로 삼았다. 기로사지시耆老社之始, 문형지시文衡之始, 호당지시湖堂之始, 족보지시族譜之始가 그것인데, 그 중에 세번째 호당지시를 이룬 것이 호당공湖堂公 권채權採 선생에 의해서다.

호당공은 추밀공파 시조후 20세로, 기로사지시를 이룬 정간공靖簡公 좌정승 휘 희僖의 손자, 제학提學 매헌공梅軒公 휘 우遇의 둘째아들로 정종 1년, 1399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태종 17년, 1417년 2월에 맹사성孟思誠과 변계량卞季良이 시관이 되어 실시한 사마시司馬試에서 생원과에 장원하고 같은 해 가을에 시행한 식년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니 19세였다. 세종 2년, 1420년에 집현전의 부교리副校理가 되고 1424년에는 집현전 수찬修撰으로서 어사로 전라도에 파견되며, 1425년에 일본의 사신 승려를 접빈하는 등으로 앞서다가 세종 8년, 1426년 12월에 임금이 ‘ 집현전의 문신 중 젊고 장래가 있는 자를 직임에서 제외시켜 독서에 전심케 하라 ’는 명을 내림에 따라 생긴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에서 대제학 변계량 선발에 그 수선首選으로 뽑혔다. 이렇게 유급으로 휴가를 받아 독서를 하는 곳을 독서당讀書堂이라 하고, 그 독서당이 도성 동쪽 한강변의 경관이 수려하던 동호東湖 또는 금호錦湖의 옥수동에 있어 이를 ‘ 호당湖堂 ’이라 별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가독서의 제1기생의 첫째로 선발되어 공이 호당지시를 이루었는데, 당시의 1기생은 3인으로 공 외에 집현전 부교리 남수문南秀文, 집현전 학사 신석조辛碩祖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공은 세종 8년, 1426년에 사가독서를 하고, 남수문 · 신석조는 공보다 8,9세 연하로서 세종 8년, 1426년 당년에 문과에 올라 어떤 기록에는 세종 20년, 1438년에 사가독서를 한 것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 기록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공이 문과급제의 9년 선배로서 두 사람을 이끌고 독서당에 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해진다. 참고로 공은 세종 20년, 1438년에는 5월 10일에 40세로 돌연히 병졸하여 당시 조야를 경동케 하였다.

공의 부고를 듣고 세종이 진도하고 탄식하며 제문을 지어 내렸는데 그 제문에서 ‘ 발탁하여 후설喉舌(승지)의 직을 맡기고 장차 크게 쓰고자 하였거늘 불행한 것이 안회顔回(공자의 요절한 제자)와 같이 되었다 ’ 하였고 조선왕조실록의 그 졸기卒記에는 ‘ 권채는 죽은 부윤府尹 우遇의 아들로 소시부터 문명이 있었으며 장성함에 이르러 시문을 다 잘하여 권제權 (종형 문경공文景公)와 더불어 문장의 전형銓衡을 맡아왔는데 나이 겨우 40에 죽으니 사람들이 경악하고 탄식하였다 ’ 하였다.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은 필원잡기筆苑雜記에서 이렇게 썼다.

승지 권채가 일찍부터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더니 불행히도 일찍 죽었다. 장군 김자웅金自雄이 매우 애석해하므로 사인舍人 박이창朴以昌이 말하기를 ‘ 그대는 문형을 주관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목은牧隱(이색李穡)이 죽으니 양촌陽村(권근權近)이 맡았고 양촌이 죽으니 춘정春亭(변계량卞季良)이 맡았으며 춘정이 죽으니 권지재權止齋(권제權)가 맡았는데 지재가 만약 죽으면 남수문이 반드시 맡을 것이다. 수문이 만약 죽으면 내가 또 있고 내가 죽으면 장군이 또 있는데 채가 일찍 죽은 것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 하였다. 그런데 그 말에서는 세상의 문장이 날로 저하된다는 뜻이 은연히 나타난다.

여기에서 의정부 사인 박이창은 대제학 박안신朴安信의 아들로 뒤에 형조참판을 거쳐 성절사로 중국에 다녀오다가 식량을 너무 많이 썼다는 탄핵으로 의주에서 구금되자 면목이 없다 하여 자결한 사람이다. 그러한 그의 이 자조는 당시 공같은 인재를 잃음에 대한 허탈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독서당에 들어가는 사가독서 제도는 이렇게 세종조에 시작되어 숙종조까지 계속하면서 총 38회에 269인을 배출하였다. 요즘으로 치면 초급 엘리트 관리의 전문 연수 과정이라 할 수 있고, 문관으로서 최고의 영예이자, 여기에 들면 장래의 고속 승진이 보장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문과에 급제하여 독서당에 선입되는 것은 그 가문으로서도 큰 영광이어서 당연히 족보 등에 기재되는데 이를 사가독서 · 독서당 · 선호당選湖堂 등으로 기록하였다.

처음 호당공 등이 사가독서 1회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서울 창의문 밖 구기동의 장의사藏義寺라는 절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장의사는 지금의 구기동 세검정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폐사廢寺인데 이를 수리하여 독서당으로 삼았던 듯하다. 다음에는 그곳에서 북한산 비봉碑峰을 넘어 더욱 한적한 진관사津寬寺를 빌어 썼는데 이는 매년 1월에 온나라의 행사이던 수륙재水陸齋를 이곳에서 베풀던 연유와 무관치 않았던 듯하다. 그러다가 중종 10년, 1515년에 이르러 서울의 성동城東 한강변 두모포豆毛浦의 산수가 수려하고 동호東湖가 펼쳐진 곳에 독립 건물을 짓고 독서당이라 현판하고 동호에 있다 하여 호당으로 별칭하게 되었다. 이것이 호당의 시작인데 이후로 세종 때에 장의사에서부터 시작한 독서당을 모두 호당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모포는 지금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동호대교가 시작되는 북안 일대이다.

한강이 도성 한양漢陽을 에둘러 흐르면서 여러 이름을 만드니, 용산강龍山江 · 마포강麻浦江 · 서강西江 또는 현석강玄石江 등으로 불리는데 유독 동쪽에는 동강東江 따위의 강이 없고 동호東湖와 금호錦湖 등이 있는 것은 그쪽의 강폭이 넓고 깊어 물살이 없고 고요하기가 호수와 같아서였다. 동호대교를 지나며 내다보면 이곳의 강폭이 넓고 여울이 없어 수중보가 없던 옛날에도 수면이 호수처럼 잔잔했다. 그래서 이곳을 동강 대신 동호라 불렀다 한다. 호수의 잔잔한 물이 비단을 펼친 것같이 고와 또한 금호라 하고, 옛적 한양의 상류 지역으로서 그 물이 맑기가 옥과 같아 옥수동玉水洞이 되었던 것이다. 그 대안 압구정동鴨鷗亭洞에 세조조 정난靖難 · 좌익佐翼 · 익대翊戴 · 좌리佐理 4공신의 1등을 받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압구정 한명회韓明澮가 갈매기와 친압한다는 뜻의 압구정을 지은 것이 이곳의 경색을 마주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두모포로 물이 굽돌아 흐르며 홍수 때는 더욱 바닥을 후벼 수심이 깊어지면서 반대편 강심에 모래톱을 밀어올린다. 이렇게 하여 두모포와 압구정동 사이에 예부터 상당한 규모의 밤섬이 있었다. 그 섬이 고려말 문절공文節公 한종유韓宗愈의 소유였다고 한다. 문절공 한종유는 안동권씨 정간공 권희의 장인으로서 호당공의 아버지 매헌공 우의 외조부이다. 매헌공의 시에 보면 ‘ 망포촌사茫浦村舍 ’가 나오는데 ‘ 망포의 시골집 ’이며, 매헌의 시골집이 외가의 전장인 망포에 있었다는 소리이고, 망포는 곧 왕숙천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곳, 지금의 구리시 한강변이 된다. 그러면 옛적 망포에서부터 이

▲ 1570년에 제작되고 율곡 등의 이름이 있으며 국가보물로 지정된 독서당계회도. 이런 문화재급의 조선시대 독서당계회도가 여러 점이 있다